

원고지와 워드프로세서

金道鎭

(나래이동통신 상무이사/본지 편집위원)



구겨진 원고지 이젠 사라지고

흔히 소설가를 연상하면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 궤초와 신경질적으로 구겨진 원고지가 떠오른다. 밤새도록 파지만 내고 겨우 원고지 몇장을 쓴 소설가가 충혈된 눈으로 커피를 따라마시는 장면은 우리가 영화 혹은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또는 젊은 시절 한때 작가를 동경했던 사람이라면 그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그려보았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감각의 소설가는 이렇게 원고지와 정력을 마구 낭비하지 않는다. 구겨진 원고지가 놓여 있던 자리에는 PC라는 문명의 이기가 놓여 있고 소설가는 책상에 앉아 밤새도록 펜을 놀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려 한 편의 소설을 쓴다. 틀린 글자가 있을 때에는 단어의 문장을 자유자재로 지우기도 하고 만년필 잉크가 떨어져 고민하거나 한자의 오자로 처음부터 원고를 다시 정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아무리 빨리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라도 프린터를 통해 나오는 소설은 명필기도 따라오기 힘든 깨끗한 글자로 인쇄되어 나온다. 정서된 소설 원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혹은 한 작품을 두곳의 신문사에 동시에 보내더라도 인쇄명령만 입력하면 원하는 분량의 원고가 정리되어 나온다. 또한 미리 작성한 초고도 집안에서 보관하다 유실되는 일도 없다. 다 쓴

원고는 손바닥 반만한 디스켓에 혹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시켜 두면 간단하게 정리, 보관할 수 있다.

소설가도 종이와 펜은 옛말

과거 우리의 문서(여기서는 글로 쓰여진 모든 인쇄물, 혹은 필사본을 총칭)작성패턴에는 종이와 펜, 혹은 붓이라는 도구가 필요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에서 변화, 타자기가 등장했다. 손을 이용한 문서작성보다 깨끗한 문서를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타이핑 도중에 오자와 탈자가 생긴 경우에 처음부터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종전보다 빠른 시간내에 문서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었다.

이런 번거로움이 일시에 해소된 것이 바로 워드프로세서의 등장이었다. 워드프로세서는 문서작성에 따른 노력과 번거로움을 크게 개선시켰다. 하나의 글자가 틀려도 다시 쓰거나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필사본보다 깨끗한 문서를 다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각종 문서 입력 · 인쇄역할

워드프로세서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 라고 할 수 있

다. 'Word'의 '글, 문서'라는 뜻과 'Processor'의 '처리하는 도구'라는 뜻이 합쳐서 이루어진 워드프로세서(Word-processor)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최근 점차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문서만을 전문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워드프로세서이며, 다른 하나로는 컴퓨터에서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응용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워드프로세서만을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용컴퓨터는 프린터 용지를 내장시킬 수 있고 휴대에 간편한 편이지만 각종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없다는 것과 출력시 프린터 전용용지만을 써야 하며, 그 용지의 재질로 인해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이 전용워드프로세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개발되어 있어 그 대중화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기술개발과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용워드프로세서는 PC의 대중화에 밀려 조만간 그 생존가능성을 아예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를 보는 시각도 컴퓨터용 특히 PC용 소프트웨어만을 지칭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감안해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고서, 편지, 메모, 논문, 책, 기타 업무용 문서작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문서든 입력, 수정, 인쇄, 보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첨가·삭제·이동·복사 등 기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워드프로세서의 등장은 문서작성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따라 등장했고, 그 고민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따라 발전이 이루어졌다.

초창기의 워드프로세서는 매우 단순한 문서편집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타자와 같이 글자를 치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지우거나, 삽입하는 등의 단순한 타이핑 기능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제한된 기능으로 인하여 워드프로세서라기 보다는 에디터(Text Editor)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서체가 다양하게 나오고, 그에 따른 글자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다양한 편집기능이 추가되는 등의 기술개발이 본격적으

로 일어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의 목적과 기본기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파일로 문서를 작성한 후에 프린터에 출력시키는 것으로써 첨가, 삭제, 이동, 복사, 검색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어떤 것이 좋은 워드프로세서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작성할 문서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현재 개발된 워드프로세서는 개발자가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었는가에 따라 약간의 기능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주위에서 자신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워드프로세서가 편리한가를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시간별 수시로 저장해 줘야

앞서 밝혔듯이 워드프로세서는 문서를 작성, 편집, 검색, 저장 등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최근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은 모니터상의 화면을 그대로 프린터에 출력시키는 것으로써 워드프로세서를 한단계 발전시킨 중요한 기능으로 꼽힌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는 대부분 이 기능을 갖고 있지만 초창기의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WYSIWYG기능이 첨부되지 않았을 때는 문서작성시 글자 모양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상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모니터화면과 프린터로 출력되는 글자의 꼴이 동일하다는 WYSIWYG기능이 첨부되면서부터 문서작성이 매우 편리해졌고, 워드프로세서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자동저장기능은 긴 문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전원이 나갔을 때 매우 효과적인 기능으로써 시간별로, 또는 입력된 글자수를 따져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문서작성시 정전이나 조작미숙으로 인한 문서손상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Spell Check 기능은 사전과 단어비교를 하면서 동사, 명사의 단수·복수, 고유명사와 약어 등을 체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향후에는 문법이나 문장의 기능까지 검토하는 워드프로세서 기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 기능은 사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쉽게도 아직까지 Spell Check 기능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한글은 영어와 다르게 합성어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오류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Spell Check 기능이 첨부된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은 조만간 기술적인 애로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청타·옵셋개념 바꾼 출판혁명

워드프로세서의 발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문서를 작성한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남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문자만으로는 각종 그래픽과 그림이 요구되는 최근의 문서개념을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 탁상출판시스템(Desktop Publishing System)이다. 글자를 통한 문서뿐만 아니라 도형과 그래픽까지 지원이 되는 각종 탁상출판시스템의 출현은 종전의 청타, 혹은 옵셋인쇄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출판혁명으로까지 비약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하드웨어의 값이 하락하고 소비자가 그래픽 등 각종 도형 및 화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거나, 이를 모사, 전송하는 등의 편집기능이 부가되어 말

그대로 탁상출판시스템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아 한글」 가장 많이 이용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워드프로세서의 종류에는 '아래아 한글, 보석글, 하나워드, 으뜸글, 장원, Q워드' 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래아 한글'이다. 이처럼 '아래아 한글'이 많이 애용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케팅전략을 따라 조기 시장에 무제한 무상배포를 실시했다는 점이 가장 크고, 둘째로는 국내는 물론 모든 IBM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로는 우리 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어와 한자사용이 용이하다는 점, 넷째로는 영어, 일본어 뿐만 아니라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등 각종 외국어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문자 등의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글자체에서도 WYSIWYG기능을 토대로 하는 글자체로써 고딕, 명조, 필기체, 샘물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매력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아래아 한글'을 선택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개발된 워드프로세서중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것으로써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 워드퍼펙트사의 'Word Perfect' 등이 있다. 

해 / 외 / 단 / 신

p53이라 불리는 단백질은 인체에서 가장 흥미있는 물질이다. 정상적인 p53은 DNA를 수리하고 억제되지 않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준다. 그러나 1천개 정도로 알려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p53 단백질은 십여개의 암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p53의 정상적인 활동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장애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분자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단백질이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질

p53 단백질의 3차원 구조 밝혀

병에 대한 치료법의 개발이 장애를 받아 왔다. 이러한 수수께끼의 일부가 미국 뉴욕에 있는 슬론-케터링 기념 암센터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풀리게 됐다.

그들은 결정화 된 p53 단백질에 X선을 쬐어서 이 분자의 결정적인 부분의

3차원적인 구조를 결정했다. 그 결과는 p53이 DNA의 외곽에 묶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p53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돌연변이가 올바른 결합을 막아서 p53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 분자는 대단히 복잡해서 시험된 여러 종류의 약품으로도 시정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종양학자인 스테펜 프렌드는 '이 발견은 더 높은 장애물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